

숙명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 수시2차모집 논술우수자전형
기출문제 (인문계열 1교시)

※ 본 기출문제는 2014학년도에 출제된 내용이며,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은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가> “좋아, 그럼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황영수부터 말해봐.”

담임선생님은 한층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달래듯 말했다. 매를 축 늘어뜨리고 말하는 품이, 너희들은 바로 대답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것 같았다. 거기 희망을 건 아이들이 석대의 존재는 거의 무시한 채 제각기 이유를 댔다. 때릴까 겁이 나서, 아무 것도 아닌 걸 위반으로 걸어 벌주기 때문에, 놀이에서 따돌림 받기 싫어서 따위의 대개 나도 겪은 이유들이었다.

마지막 아이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표정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그래-?”

담임선생님은 비꼬듯 내뱉으며 그들 여섯을 차갑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우리 모두가 흠칫할 만큼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교단을 짚고 엎드려뻗쳐!”

그리고는 한 사람 앞에 열 대씩을 매질해 나가기 시작했다. 맞는 동안에 두어 번 찌은 몸이 교실 바닥으로 내려앉을 만큼 모진 매질이었다.

매질이 끝나자 교실 안은 한동안 그들의 훌쩍거림으로 시끄러웠다.

“모두 일어나!”

이윽고 훌쩍거림이 잦아들자 담임선생님은 그들 여섯을 일으켜 세우고 간신히 성을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되도록 너희들에게 손을 안 대려고 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들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의 우등생인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모두 교단 위에 손들고 앉아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나>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대체로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허위적이고 위협을 피하려고 고심하며, 이익에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보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덜 주저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악한 동물이므로, 의리의 유대에 의하여 유지되는 애정 따위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변동에 따라 끊어버리지만, 처형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는 결코 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주는 그의 신하들을 결속시키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비난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비심을 베풀어 혼란 상태를 초래하고 마침내 약탈과 유혈 사태를 빚게 하는 군주에 비하면, 가끔 잔인함을 보여 무질서를 진압하는 군주가 결과에 있어서는 보다 더 자비롭게 보일 것이다.

군주는 변덕스럽고 경박하며 나약하고 무기력하며 우유부단하다고 보일 때 멸시를 당한다. 배가 위험한 암초에 부딪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과 같이 군주는 위대함과 용기와 엄숙함과 과단성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하와의 사사로운 문제에서도 군주는 결정을 철회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군주를 속이거나 농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평을 듣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군주는 위대하게 평가되며, 위대하게 평가된 군주에 대한 반역은 어렵다.

세베루스는 비록 민중을 억압하긴 했지만 탁월한 능력으로 병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통치할 수 있었다. 그의 위대한 자질이 민중의 눈에나 병사들의 눈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였기 때문에 민중은 그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한 반면 병사들은 그를 존경하고 만족스러워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있으나 접촉은 소수자밖에 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접하여 판단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군주의 겉모습만 알 뿐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 사람들이 스스로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것들을 억누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심할 것 없이 두려움

때문이다. 살해의 공포, 감옥의 공포, 기아의 공포 등은 테러가 횡행하는 체제에서 일어나는 억압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테러의 공포를 통해 반(半)수면 상태를 만들며 행해지는 선동적 설득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의 지각에 호소하는 것, 즉 진실의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몽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몽상이 삶의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인간이 몽상 자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한다면, 즉 그가 반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그는 지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참된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되며, 현실을 상식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허위의식’, 현실의 왜곡된 상은 인간을 쇠약하게 만든다. 반면, 현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즉 현실에 대한 바른 상을 갖는 것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몽상과 이데올로기를 벗겨버리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몽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힘에 대한 복종을 멈추는 것이다. 불복종의 능력은 복종의 능력만큼이나 위대하다. 이스라엘과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불복종에서 시작되었다. 에덴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는 자궁 속 태아처럼 여전히 자연의 일부였다. 그들이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불복종 행위는 자연과의 원시적 유대를 끊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개인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볼 때 불복종은 자유의 첫 번째 행위였으며 인간 역사의 시작이었다. 신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로 불복종한 자였다. “나는 신들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바위에 묶여 살겠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훔쳐 인간에게 선물로 준 불은 인간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인간은 불복종의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발전해왔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적·지성적 진화는 새로운 생각을 막으려는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변화를 꾀하는 권위에 대한 불복종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것은 양심과 신념의 이름으로 당대 권력들에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 <다>의 관점에서 <표 1>을 참조하여 <가>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태도와 <나>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1,000±100자)

<표 1> 경제성장률 및 복지예산 변화(평균) (단위: %)

국가	독재 시기 경제성장률	민주화 이후 경제성장률	독재 시기 대비 민주화 이후 복지 지출 증가율
네 팔	2.81	2.67	313.60
도미니카공화국	3.64	2.75	-0.88
니카라과아	0.60	-0.87	121.60
파나마	2.64	2.36	60.80
루마니아	6.21	0.75	35.90
브라질	3.49	0.59	20.30
한 국	6.27	5.63	64.40
헝가리	3.36	1.98	35.10
스페인	6.04	2.12	49.40

<가> ‘공적(public)’이라는 용어는 두 현상을 의미한다.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공적’이라는 용어는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private)’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공적 영역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본래 ‘사적’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말해주고 있듯이 무엇이 ‘박탈된(privativ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박탈되었음을 의미한다. 타인이 보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공동의 사물세계의 중재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객관적’ 관계의 박탈, 삶 그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 사적 생활의 이러한 박탈성은 타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한 사적 인간은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사적인 인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타인에겐 아무런 의미도 중요성도 없으며,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인간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존을 보존하는 사적 영역은 세계를 구성하는 데 필연적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필연적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고대 정치에서는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을 위해 희생시키지도 않았으며, 이들 두 영역은 오히려 공존의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 사적 소유가 절대화됨으로써 사적인 것이 오히려 공적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는 실제로 사적인 활동이 가정의 어두운 내부로부터 벗어나 공적 영역의 밝은 곳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던 경계선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변질되었다. 사적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말과 행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공론 공간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이제 공동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으며 공동의 세계에 의해 구별되거나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공유하는 공동세계 없이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로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 오늘날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소유 집중화, 거대 복합기업화, 그리고 과도한 상업화로 요약된다.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은 첨단기술의 눈부신 광채 이면에서 점차 시장지배력을 키워 소수에게 사적 소유권을 집중시키면서 거대 복합기업으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영화, 음악, 지상파와 케이블, 인터넷, 스포츠팀 등을 총망라하는 복합기업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때마다 경쟁자들을 퇴출시킨다. 이러한 소유 집중화는 다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도한 상업화로 귀결된다.

소유 집중과 과도한 상업화는 미디어 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미디어 부문이 경제적 붐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대 미디어 기업이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고 미디어가 사적 소유의 영역에 장악될수록 참여민주주의의 존립 가능성은 그만큼 약화된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미디어와 빈약한 민주주의’라는 역설이다. 시민의 정치참여 의식은 계속 위축되고 탈정치화 추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가 일반대중의 참여를 배제시킨 채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독점한다. 미디어 개혁은 소수가 사적으로 독점한 권력을 다수에게 되돌리는 폭넓은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미디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을 좀 더 평등하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 다섯 명의 사람들이 런던 워털루역 근처 카페에 앉아있다.

승객 1: 영국, 그래, 참 아름다운 나라지, 철도하나 굴러가지 않는!

승객 2: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제대로 되는 건 하나 없어. 모든

게 그래. 다들 열심히 일하며 다 잘 되길 바라지.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선 생각들이 다 달라.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기존 방식은 잘못되었으니 바꾸자'는 거야.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왜지?

승객 3: 정부가 철도에 대해 하는 일이 제일 웃겨. 왜 웃긴지 말해 줄까? 정부는 뭐든 다 잘하는 데 딱 하나, 문제만 해결 못해. 웃기지? 다 잘하는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정작 해야 하는 유일한 일만 못하는 거지. 결국엔 팔아버렸잖아!

승객 4: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세상에 공짜란 없어'라고 했지. 맞아. 공짜도 없고, '자유 시장'이란 것도 없어. 시장은 조작되고, 늘 조작되고, 그건 항상 시장을 굴리는 사람 편이야. 그게 시장이란 거야. 속임수 카지노 같은 거지. 딜러가 항상 이겨. 우리나라 철도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승객은 항상 비싼 요금을 내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 했지. 그래, 지금은 이전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지. 왜냐고? 왜냐면 철도가 개인 소유니까. 서비스도 형편없어. 왜냐고? 개인 소유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거든, 그들에게만 말아야. 그러니 그들 말이 틀리진 않았던 거야.

승객 5: 지금의 철도 시스템이 멍청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 마치 요리사와 웨이터와 접시닢이가 각기 다른 회사 소속인 레스토랑이 운영되는 것과 같아. 멍청한 일이지? 멍청한 일이야. 멍청이라도 멍청한 일이라고 할 거야. 철로는 이 회사, 열차는 저 회사, 서비스는 또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이게 말이나 돼? 손발이 맞을 리가 없지.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해. 영국의 철도 사고율은 정말 세계 최고야. 게다가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누구 책임인지 알 수가 없거든.

2. <가>의 논지를 통해 <나>와 <다>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에서 말하는 '박탈'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